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NEWS 2018. 09. 18 Vol.956

발행처 현대자동차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제작 문화홍보팀 나형진 기자 | 울산홍보팀 이정탁 기자 | 아산총무팀 이성규 기자 | 전주총무팀 이우영 기자 | CS혁신팀 박솔지 기자 | R&D문화개발팀 손지한 기자

FOCUS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대표 준중형 세단 ‘더 뉴 아반떼’ 출시



<포커스 6~7면 참조>

THEME

삶의 무대에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연주하고 있나요?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연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봅니다.



play

TRAVEL

이야기 따라 발자국 여행

아드리아해의 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나라
크로아티아

푸른 빛의 바다와 깨끗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고풍스러운 중세 도시들이 어우러진
크로아티아의 낭만 속으로 떠나봅니다.



미국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미고'에 전략 투자

파트너십 결성을 위한 전략 투자 단행, 미국 모빌리티 시장 진출 발판
미국-유럽-아시아 잇는 글로벌 '모빌리티 비즈니스 벨트' 구축



우리회사가 미국-유럽-아시아를 잇는 '모빌리티 비즈니스 벨트' 구축을 통해 미래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진영을 갖추게 됐다.

이는 우리회사가 미국의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 업체 미고(Migo)와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 공유경제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고는 2016년 미국 시애틀에서 문을 열어 2017년부터 모빌리티 다중통합(Multi Aggregation)이라는 신개념 서비스를 미국 최초로 선보인 업체다.

모빌리티 다중통합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사용자가 미고 앱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다양한 공유 업체의 서비스 가격, 소요 시간 같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사용자에게 적합한 업체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고는 시애틀과 포틀랜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등 미주 주요 75개 도시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했다.

우리회사는 미고에 대한 전략 투자를 계기로 미국의 모빌리티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더 나아가 미래 모

migo

빌리티 시장을 주도하는 역량과 기술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미고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초기에 이루어진 데다가 투자 기업 중 자동차 업체는 우리회사가 유일해 두 회사 간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미고의 독특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우리회사가 경쟁력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모빌리티 시장은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모빌리티 시장은 2025년 2천 9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2030년에는 4천58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보다 많은 공유 업체와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용자의 각종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리회사는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망한 모빌리티 업체들을 발굴하고 협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사천성에너지투자그룹과 전략합작협약서 체결

사천성 대표 국유기업 '천능투'와 사천현대 신규 파트너십 결성

우리회사는 지난 3일 양재동 사옥에서 중국 상용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사천성 대표 국유기업인 '사천성에너지투자그룹(四川省能源投资集团)'과 전략합작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전략합작협약서 체결을 통해 우리회사는 천능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 상용차 생산·판매법인인 사천현대를 중국 대표 상용차 기업으로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천능투가 기존 사천현대 합작사인 남준기차의 지분(50%)을 인수하고, 우리회사와 함께 증자에 참여해 사천현대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합작사인 천능투는 사천성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천성 대표 국유기업이다. 배터리,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어 사천현대와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회사와 천능투는 두 회사가 보유한 강점을 바

탕으로 상용차 연구개발, 생산, 판매는 물론 서비스, 물류, 신에너지차 등 전 부문에 걸쳐 다각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천능투와의 합작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사천현대의 상품 경쟁력, 생산 효율성, 판매 역량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여 중국 상용차 업계의 주목을 받는 상용차 메이커로 새롭게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우리회사는 철저한 시장 및 상품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현지의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시장을 위한 매력적인 상용차를 연이어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 브랜드 3개 차종, 자주 브랜드인 치도 브랜드 3개 차종 등 총 6개의 라인업을 갖춘 사천현대는 2022년까지 신차 및 후속차 총 5개 차종을 개발해 중국 상용차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트럭 전기차를 투입해 중국 신에너지 상용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

现代自动车株式会社・四川省能源投资集团有限责任公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천성에너지투자집단유한공사

战略合作框架协议签约仪式
전략합작협약서 조인식

2018. 9. 3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아중동 등 중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도 추진한다. 중국 전략형 모델인 창호(엑시언트급), 성투(마이티급)를 올해 소량 수출하고 점진적으로 그 양을 확대해 생산 공장 가동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판매 및 딜러 개발 전문가를 영입하고 우수 딜러를 대규모 확보하는 등 딜러 네트워크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주요 지역에 권역본부를 설치해 시장 밀착형 판매 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우리회사는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중국 상용차 시장의 선두권 업체로 발돋움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손잡고 수소사회 진입 앞당긴다



우리회사와 부산광역시는 지난 7일 부산시청에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미래혁신성장 주력산업인 수소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우리회사는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에 수소충전소 1개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부산시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과 수소전기차

대중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편성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본격적인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200대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개소를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1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우리회사는 글로벌 수소위원회 공동 회장으로서 차세대 수소전기차의 성공적인 개발, 택시 및 카셰어링 업체와의 수소전기차 협업, 서울시와 수소 전기하우스 구축 등 수소 에너지의 경쟁력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래 수소 사회를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d Company) 설립 및 사업에도 참여해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고성능 N',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에 차량 공급



우리회사는 양산형 모터사이클 경주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경주인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WorldSBK)' 대회에 2019년 시즌부터 공식 세이프티 카로 '고성능 N' 차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은 1988년부터 시작해 시즌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 세계 12개국의 세계 유명 레이스트랙을 순회하며 실력을 겨루는 대표적인 모터사이클 경주다.

경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전용 모터사이클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의 개조를 통해 승부를 다투는 대회로 모터사이클 제조사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며 경기 현장 관객이 약 5만 명에 이르는 등 팬층도 두텁다.

우리회사의 고성능 N 차량으로 운영될 세이프티 카는 경주 시작 시 또는 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레이스 트랙에 투입돼 경주 속도를 조절하는 등 경기 전반을 운영하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차량으로, 경주에 참여한 모터사이클의 선두에서 달려야 하므로 빠른 주행 성능과 함께 높은 내구성이 요구된다.

이번 세이프티 카 공급과 더불어 우리회사는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을 대상으로 경기 관람 기회 제공 및 경주가 진행되는 레이스 트랙에서 현대차의 다양한 차량 시승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고객 경험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 퀴즈왕에 도전하세요!

우리회사는 행정안전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어린이,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민·관·기업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6학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선전은 10월 1일까지 키즈현대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며 어린이들은 본격적인 응시에 앞서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안전 상식을 공부하며 퀴즈도 풀어볼 수 있다. 안전 퀴즈는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9개 분야의 안전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키즈현대 홈페이지 내 안전 전자책(E-Book)과 자료실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예선전은 개인별로 저학년 25개, 고학년 30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 후 성적이 우수한 어린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17개 시도별 성적 우수자 6명(총 100명, 세종시 4명)을 선발해 자치단체장상을 수여하고, 부문별 고득점자 각 17명에게는 본선에 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선 대회는 10월 27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진행하며, 키즈현대 SNS채널(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후원

우리회사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축제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Ars Electronica Festival)'에 행사 및 의전 공식 차량으로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9대의 차량을 지원해 현대차의 앞선 친환경 기술과 우수한 상품성을 알렸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은 예술, 기술과 사회를 위한 축제(Festival for Art, Technology and Society)를 모토로 1979년부터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 전 세계에서 약 1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는 세계적 규모의 행사다.

올해로 37회째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작가, 큐레이터, 엔지니어, 과학자, 사회과학자, 스타트업 대표 등 1천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편 우리회사는 오는 11월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베이징·모스크바에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공동 기획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의 파트너십도 더욱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THEME

여러분은
어떤 꿈을

연주하고
있나요?

play



일러스트 허예리

위대한 유산 글_한미림 에세이스트

연주 이상의 가치, 대중을 사로잡은 마에스트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인

클래식 문외한조차 지휘봉을 들고 명상에 잠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1908~1989)의 사진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클래식 녹음에 본격적으로 나섬으로써 클래식의 대중화를 일궈낸 장본인이다. 20세기 클래식 음악계는 카라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카라얀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35년간 종신 지휘자로 군림한, 클래식 음악의 살아 있는 신화였다. 카라얀이 활약하기 전까지 클래식은 일부 상류층이나 고급 취향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로 통했지만 그의 등장을 기점으로 대중음악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인으로 카라얀을 꼽기도 했다.

카라얀은 스물일곱 살에 독일 아헨(Aachen) 오페라극장의 음악감독이 됐고 1950년대에는 베를린 필하모닉과 빈 오페라극장(Staatsoper Wien)의 음악감독을 겸임했다. 젊은 나이에 활짝 핀 그의 뛰어난 재능은 현재 음악계에서도 끊임없이 회자될 정도로 전무후무하다.

특히 카라얀이 뛰어난 점은 단순히 지휘자로서의 카리스마뿐만이 아니다. 대중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존 레논처럼 그도 자신의 분양인 클래식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인기 음악가였다는 사실이다. 카라얀은 당시 사회 분위기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레코드의 유효성에 주목했다. 1939년 독일 그라모폰과 계약한 이래 실로 방대한 레코드 녹음을 완성했다. 1960년대까지는 연주자들이 레코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카라얀은 줄곧 레코딩을 고집했다. 이러한 카라얀의 접근 방식은 클래식에 대한 대중의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예술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실현하려고 한 카라얀의 영민함은 당시 음악계에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레코드는 대중이 되풀이해서 감상하는 것을 전제로하므로 녹음 시 실제 연주회장의 음향 이상으로 완벽함이 요구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레코딩 시스템이 카라얀의 연주에 미묘하게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실제로 그의 연주는 누구보다 섬세하고 치밀하며, 곡 전개에 다이내믹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5

영화 <피아니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연주했던 한 피아니스트의 감동 실화를 담았습니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피아니스트 브와디스와프 슈필만은 독일군 장교 빌헬름 호젠펠트 앞에서 쇼팽 녹턴 20번을 연주했습니다.

암울한 그 시기에 목숨을 걸고 연주한 그의 선율은 독일 장군의 영혼을 울렸고 덕분에 그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순간에 온 힘을 다한 그의 연주처럼 여러분은 어떤 꿈을 위해 연주하고 있나요?

생생 인터뷰

케니 G 처럼 When I Fall In Saxophone

아산총무팀 구자훈 대리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산총무팀 구자훈 대리입니다. 색소폰을 연주한 지 어느덧 7년 정도 됐네요. 처음에는 연주곡을 좋아하는 열혈 리스너였다가 ‘한번 직접 연주해보자!’라고 결심한 것이 연주에 입문한 동기가 됐습니다.

Q. 어떻게 색소폰에 빠지게 됐나요?

<Mo’ better Blues>라는 곡을 좋아했거든요. 특히 이 곡에 들어간 관악기 소리가 매력 있게 들렸는데 색소폰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이후로 20대 중반까지 쪽 듣기만 하다가 색소폰을 구입하고 독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혼자 연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학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 연주에 더욱 빠지게 됐습니다.

Q. 연주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가요?

색소폰의 소리가 크고 시원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연주하면서 풀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더구나 혼자가 아닌 여러 악기와 합주할 때면 팀원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고요. 물론 연주할 새로운 곡을 만날 때의 설레는 긴장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Q. 합주할 때 가장 유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팀원들 간의 ‘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원 선생님을 통해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팀원들을 만났거든요. 2주에 한번 정도 모여 합주 연습을 하고 있어요. 피아노, 베이스, 드럼, 기타와 제 색소폰이 만나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즐거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연습한 후에 비정기적으로 무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단순한 구성의 곡이어도 함께 맞춰본 노력이 딱 드러나면 청중들도 진지하게 경청해주시더라고요.

Q. 주위 사람들에게 연주를 들려주었을 때의 반응은 어떤가요?

혹여 우리 연주가 시끄럽게 들리지 않도록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선곡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덕분에 청중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들으시는 것 같고, 색소폰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뿌듯합니다.

Q. 혼자 연주하는 것과 합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아울러 요즘 연주하고 있는 곡이나 앞으로 목표하는 곡을 소개해주신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합주가 훨씬 풍성한 연주를 만들어줘요. 무대에 올라 함께 공연을 마치고 나면 팀의 소속감과 팀원들과의 연대감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재즈 공연은 기본적인 멜로디 다음에 각자 솔로 파트가 주어지거든요. 그때 바로 옆에서 다른 악기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서로에게 행복감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Summer Samba>와 같은 보사노바 곡을 주로 연주하며, 앞으로는 <When I Fall In Love> 같은 재즈 발라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Q.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사우들에게 추천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다면?

악기 연주는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동시에 자신도 청중이 되므로 충분히 새로운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주에 앞서 <Mo’ better Blues>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OST곡인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을 들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색소폰이 폐활량이 커야 잘할 수 있다는 편견이 있지요. 하지만 부는 방법만 제대로 익히면 적은 숨으로도 큰 음량을 내는 데 문제없기에 여성분들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은 악기입니다. 혼자 연습하다 보면 잘못된 방법이 굳어지기 쉽고, 나중에 고치려면 어려우므로 학원에서 6개월 정도 배우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쉬운 곡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Q. ‘연주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생각을 추려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주하는 것은 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지한 일로 생각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므로 ‘악기는 놀이 도구’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친해질 것 같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감각을 즐겨라

악기를 익히고 연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음악 연주의 즐거움을 알 것이다. 연주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경험이다. 내 손끝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것이 박자를 통해 다른 소리들과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체험은 그 자체로 기쁨의 원천이다. 연주의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한 음악 치료에서는 연주의 효과에 대해 환자 개개인의 감정적 경험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돕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음악 치료기법에 따르면 음악 연주를 통해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감각을 다시 일깨우고 정교하게 조정하며,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또한 연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과 자기통제를 배우고, 상호 교류나 대인 관계의 기술과 자신감까지 배우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모든 연주는 기술을 요구하고, 더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때로는 즐거울 수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영화 <스쿨 오브 락>은 연주의 즐거움을 낙천적으로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영화의 주인공인 듀이 편은 동네 록밴드 단원인데, 월세가 밀리자 친구 이름을 사칭해 근처 사립초등학교의 대리 교사로 취직한다. 그는 우연히 자기 반 학생들 중에 음악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이용해 록밴드 경연대회에 참가해 상을 타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는 연주의 즐거움을 뱉속 깊이 알고 있었다. 또한 록에 관해서라면 누가 잘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자신보다 어린 학생이더라도 인정하고 공감하고 교류할 줄 알았다. 이런 인물이 음악적으로 잘 훈련된 고급 사립 초등학교 아이들과 만나자 황당하지만 유쾌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리나라 학원 키드처럼 부모 등쌀에 떠밀려 억지로 연주 기술만을 숙련하던 아이들에게 듀이가 연주를 제대로 즐기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다. 그 결과 보통의 선생-학생 영화들과는 정반대로 선생은 아이들로부터 체계적 지원을 얻고, 아이들은 선생으로부터 연주의 즐거움을 배우며 멋진 밴드를 만들어간다.

수없는 좌절을 극복한 뒤 성취를 맛보라

이번에는 <위플래쉬>를 보자. 자신의 연주를 놓고 타인의 평가를 제대로 받아본 적 없던 앤드류가 유명한 고등학교 재즈밴드의 멤버가 돼서 겪는 음악과 연주에 대한 성장기를 다룬 영화다. 앤드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처의 지독한 교육 방식은 그에게 음악을 즐길 수 없도록 한다. 플랫처를 따라 자신이 드림을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는지보다 어떻게 연주하는지에 더 열중하던 앤드류는 열등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고 만다. 가족도, 애인도 내치고 오로지 드림에만 몰두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건 최악의 좌절뿐. 결국 무대에 올라서도 드림 연주를 망치고 말지만 놀라운 반전은 이후에 일어난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패배자가 돼 돌아서려던 그가 다시 무대 위의 드림 자리로 돌아와 지휘자인 플랫처를 무시하고 연주를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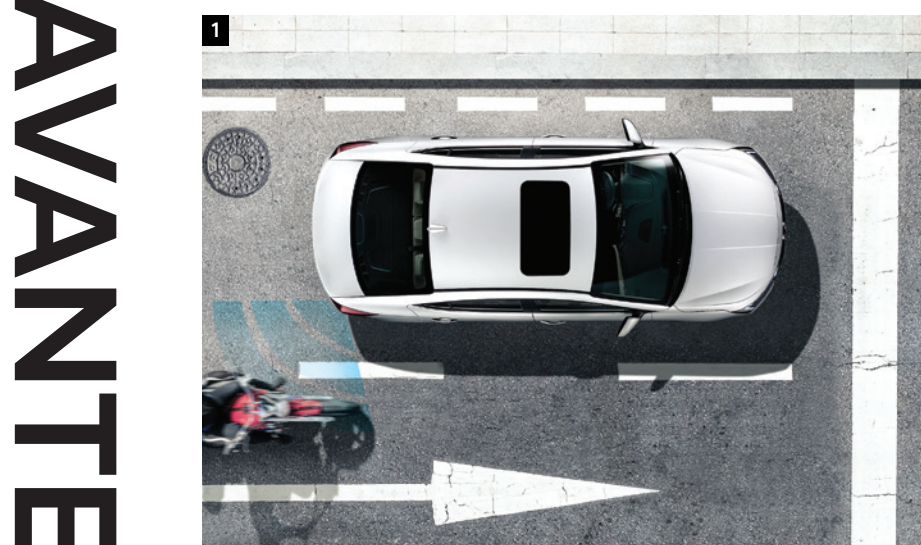
영화가 던지는 연주의 빛과 어둠은 연주자의 심리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연주는 남들 앞에서 내 실력을 보여주는 공연이지만, 동시에 무수한 타인들의 평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노출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플랫처는 이런 연주의 위험을 극대화한 존재였다. 앤드류는 처음에는 그 함정에 빠져 사람들을 우열로 평가하며 오로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인간이 될 뻔했다. 하지만 결국 앤드류는 플랫처 역시 관객 앞에서는 자신과 동등한 연주자임을 깨닫고 뒤늦게 관객을 상대로 자신이 그동안 피땀을 흘리며 쌓아온 모든 것을 쏟아내 보이기 위해서 드림을 두드린다. 연주의 즐거움과 고통스러움 그것은 연주하는 자의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삶의 목표를 향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면 결코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것일 테니 말이다. 듀이 편처럼 즐길 것인가 혹은 앤드류처럼 고통스러워할 것인가는 연주자의 몫이다.

FOCUS

끊임없이 자기 진화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아반떼

우리회사가 지난 2015년 9월 출시한 아반떼(AD)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아반떼'를 출시했다. 지난 6일 회사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시 행사 및 시승회를 갖고 더 뉴 아반떼의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우리회사 더 뉴 아반떼는 신차 수준의 혁신적인 디자인 변경,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구현, 신규 안전 및 편의 사양 추가 등을 통해 준중형 세단의 기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 세단으로 탈바꿈한 더 뉴 아반떼는 젊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향상된 실용 성능을 바탕으로 데일리 카로서의 편안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 더 뉴 아반떼는 안전하차 보조(SEA), 차로이탈 방지보조(LKA), 운전자주의 경고(DAW), 후방 교차충돌 경고(RCCW) 등 첨단 주행 지원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안전 및 편의성을 강화했다. 특히 안전하차 보조는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 시 경고 알람이 작동해 승객들의 안전한 하차를 돕는 기능으로 동급 최초로 적용했다.

기자 시승기 글_오종훈 오토다이어리 편집장



더 뉴 아반떼는 활공하는 제트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을 연출해 전면부는 강렬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후면부는 세련되고 날렵한 모습을, 실내는 입체적이고 스포티한 조형미를 갖췄다.



2 3 더 뉴 아반떼는 내비게이션의 검색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여주는 서버형 음성인식 '카카오 i(아이)'와 재생 중인 음악을 인식해 해당 곡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운드하운드' 등 인공지능 기반 첨단 사양을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구글의 차량용 폰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공기청정 모드',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등을 신규 적용해 운전자의 쾌적한 주행 환경을 돕는다.

4 더 뉴 아반떼는 가솔린, 디젤, LPi 총 3가지 엔진으로 운영된다. 가솔린 모델은 동력 손실을 줄이고 연료 효율성을 향상한 차세대 엔진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과 변속 충격 없이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 차세대 변속기의 최적 조합을 통해 15.2km/ℓ(15인치 타이어 기준)의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달성했으며 최고 출력 123마력(ps), 최대 토크 15.7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디젤 모델 역시 디젤 1.6 엔진과 7단 DCT의 조합을 통해 17.8km/ℓ(15, 16인치 타이어 기준)의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확보하고 최고 출력 136마력(ps), 최대 토크 30.6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LPi 모델은 LPi 1.6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의 조합으로 운영되며 최고 출력 120마력(ps), 최대 토크 15.5kgf-m의 동력 성능을 확보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온 국선 변호인은 철거민의 편에 서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

2015년 개봉한 <소수의견>은 2009년에 있었던 울산 철거민 사건을 다룬 영화로, 지방대 출신의 학벌과 경력이 뛰어나지 않은 2년 차 국선 변호사 윤진원(윤계상)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건 철거 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하고, 주인공 국선 변호사 윤진원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8



영화 <소수의견>의 한 장면

국선 변호인은 어떻게 선임할 수 있나요?

헌법 제12조 4항을 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화 <소수의견>의 사례를 통해 법정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

철거민 박재호는 강제철거현장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자신을 찾아온 아들이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죽자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 경찰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법정에 서는데, 이때 그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계속 은폐하려는 검찰에 맞서 결국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처럼 국선 변호인 제도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을 보충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금전적 능력이 없는 게 현실인 만큼 혹시라도 변호인이 없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을 변호해줄 수 있는 사람을 법원이 선임해주는 것입니다.

피고인마다 1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명 이상의 국선 변호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사선 변호인 전부가 사퇴하자, 사건이 복잡하고 재판 기록이 많다는 이유로 2심 재판부가 다수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총 6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규정(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돼 있으며,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신청을 무시하고 재판을 끝낸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며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의자 오 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48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오 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에 국선 변호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오 씨의 국선 변호인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고,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뒤늦게 기각한 2심 법원은 같은 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몸의 중심, 디스크를 지켜라

글_이준규 의학칼럼니스트·보건학박사

비만과 운동량의 상관관계는 확실히 높다. 문제는 운동량이 부족하면 점점 더 살이 찌 이를 지탱해주는 척추 역시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 운동량이 거의 없는 비만 환자의 경우 척추 근육이 약해지고 자세가 나빠지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데, 실제로 디스크 환자 중 59%가량이 비만이라는 보고가 있다. 비만을 계속 방치하면 몸 안의 지방은 쌓이지만 근육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약화돼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Check List ✓

요통 자가 체크 리스트

- | | |
|-------------------------------------|--------------------------|
| ① 이복자리는 폭신하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 ☐ |
| ② 자세가 나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 ☐ |
| ③ 목욕탕 등에서 사람들에게 허리가 삐뚤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 ☐ |
| ④ 너무처럼 몸이 뻣뻣하다. | ☐ |
| ⑤ 휴일은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누워 쉬는 경우가 많다. | ☐ |
| ⑥ 만성 수면 부족 상태이며 담배를 많이 피운다. | ☐ |
| ⑦ 채소와 과일을 잘 먹지 않는다. | ☐ |
| ⑧ 의자에 앉아 일을 하는 사무직이다. | ☐ |
| ⑨ 짧은 거리도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 ☐ |
| ⑩ 항상 꼭 끼는 속옷과 두꺼운 옷을 선호한다. | ☐ |
| ⑪ 사소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한 성격이다. | ☐ |
| ⑫ 1주일에 3일 이상 하는 운동이 없다. | ☐ |

3개 이하: 현재는 괜찮지만 언제 요통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3~6개: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자칫 요통의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6개 이상: 이미 요통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루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세요.

운동이 부족한 당신이라면

복부 비만이 심각한 사람들은 배가 나오면서 앞쪽으로 중심이 이동해 허리뼈에 무리가 가므로 요통이 많이 생기고 심한 경우 허리 디스크로 악화될 수 있다. 요통 환자들의 경우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허리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디스크나 척추 신경, 뼈에 큰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동 부족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허리 근력이 약화돼 요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허리 근력을 측정해보면 대부분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허리를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충격이 척추나 디스크로 전달된다. 이 때문에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해져 요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이것이 반복되면 디스크의 변성으로 인한 디스크 탈출증이 올 수도 있다. 허리 근력이 약화돼 디스크 내압이 높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는 동작과 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면 일상적으로 하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도 디스크의 섬유륜이 찢어지면 서수핵이 탈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 학생의 경우 평소 이유 없는 요통에 시달린다면 허리 근력 약화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약화된 근육을 강화해 다른 부위 근육과 조화를 이루게 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원인 질환이 있는 요통이라도 증상이 비교적 초기인 사람, 수술 여부와는 상관없이 허리 근력이 약해져 통증이 더 심한 사람 역시 선택적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하면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충격 역시 요통을 유발할 수 있다. ‘한 번 삐끗했을 뿐인데...’라고 지나칠 수 있으나 ‘급성 요부염좌’ 역시 만성 요통의 원인이다. 무거운 물건을 잘못든 자세, 즉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들었을 때 허리의 근육과 인대가 과도한 긴장 상태가 되면 통증이 유발된다. 마치 용수철을 과하게 당기면 견딜 힘을 초과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늘어나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 용어로 급성 요부염좌라고 하는데 물건을 들어 올릴 때뿐 아니라 격렬한 운동,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한다.

허리는 인체 상반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신체 운동 시 주축이 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상을 입기도 쉽다. 빠른한 허리 근육 통증이 갑자기 발생해 운동 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때로 엉덩이, 사타구니, 허벅지 뒤쪽까지 통증이 번져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무릎 아래로까지 통증이 번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심할 때는 근육 강직과 통증으로 움푹달랴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급성 요부염좌 환자들은 통증이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 통증이 사라졌다 다시 상태가 나빠지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런 때는 일단 안정을 취하며 찜질 같은 물리치료를 받거나 근육 이완제 및 진통제 같은 약을 단기간 복용하면 보통 수일 내에 통증이 사라진다. 하지만 일부는 만성으로 굳어져 고질적인 요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따라서 급성 요부염좌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로 완쾌시켜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QUIZ

956호
다른 그림
정답



955호 당첨자

우봉구(차체2부)
유종현(울산법무지원팀)
임정윤(보건팀)
최건영(R&D프로세스개선팀)
윤상호(부산동부트럭지점)
이범주(아산의정부)
지현주(대구서비스센터 센터운영팀)
안다숨(엔진제어시스템개발팀)



정답 :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사진에서 서로 다른 5곳을 체크해 9월 28일까지 편집실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1만 원, 매월 말 송부)을 드립니다. (1만 원, 매월 말 송부)

수신 _ 문화홍보팀 <현대자동차> 신문 담당자 앞
발신 _

각 코너에 소개할 만한 팀(부서), 사우를 제보해주십시오. 취재가 이루어질 경우 제보해주신 사우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1만 원, 매월 말 송부)을 드립니다.

*퀴즈 응모 시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신청합니다!”

이야기 따라 발자국 여행 글·사진_백상현 여행작가

발칸 여행의 하이라이트, 크로아티아 3색 테마 여행

아드리아해를 따라 형성된 나라, 크로아티아는 몇 년 전 TV 여행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대표적 여행지다. 북서쪽으로 슬로베니아, 북동쪽으로는 헝가리, 동쪽으로 세르비아, 그 아래로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아드리아 해 건너편에는 바로 이탈리아가 마주하고 있다. 동·서유럽과 발칸을 이어주는 교차점이기도한 크로아티아는 낭만 가득한 바다와 내륙 속의 청정한 자연, 그리고 고풍스러운 중세 도시들이 어우러진 매우 아름다운 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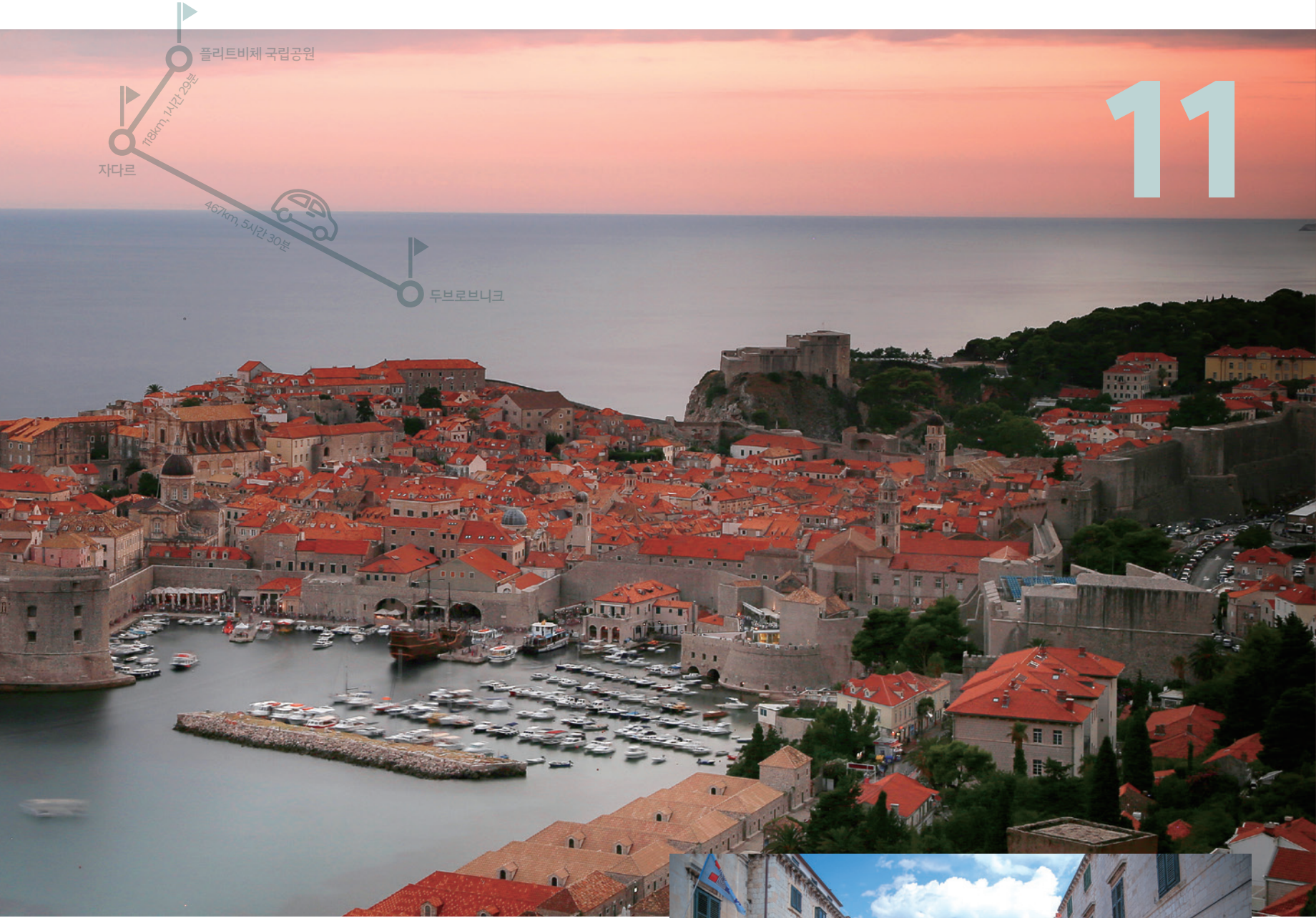


푸른 색채로 가득한 요정의 숲,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크고 작은 16개의 맑고 푸른 호수와 수많은 폭포로 연결된 동화 속 풍경 같은 자연을 품은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16~17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한 곳으로, 예전에는 사람의 접근이 힘들어서 ‘악마의 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 모티프가 되기도 했다. 전나무와 삼나무 등 뾰뚱한 나무와 풀숲 사이로 구불구불 산책로가 이어져 마치 원시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나무 갑판을 깔아 호수와 자연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만든 이 산책로는 무려 18km에 이른다. 호수에 포함된 광물과 날씨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공간이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물빛과 풀빛이 어우러져 맑고 푸른 호흡을 할 수 있는 청정 여행지로 손꼽힌다.

파도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 자다르

아드리아해 북부의 항구 도시 자다르는 ‘선물로 지어진 도시’라는 뜻을 담은 이름답게 여행자들에게 마치 선물처럼 기쁨을 안겨주는 곳이다. 중세 시대 로마 교황청의 직속 관리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며, 로마 시대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주 고풍스러운 느낌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자다르는 아드리아해를 마주 보는 해안가에 건축가 니콜라 바시치가 2005년에 설치한 세계 유일의 ‘바다 오르간(Moske Orgulje)’으로 유명하다. 바닷가 돌계단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어놓아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다양한 높낮이의 소리가 연주된다. 인간과 자연의 합주가 바람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아드리아해 너머로 해가 기울면 세상 가장 질고 낭만적인 석양이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아드리아해의 반짝이는 진주, 두브로브니크

남쪽으로 아드리아해안의 가장 끝자락에 두브로브니크가 있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상에서 천국을 찾는 자, 두브로브니크로 오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또한 이 도시의 열렬한 팬으로 명예시민이 된 일화도 유명하다. 푸른 하늘과 테라코타 붉은 타일 지붕과 푸른 바다가 어울려 황홀한 색의 잔치를 벌이고 멀리 하얀 돛을 펼친 유람선이 동화의 한 장면처럼 성벽을 스쳐가는 모습이 그림 같다. 스르지 언덕 위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붉은 도시와 눈부신 아드리아해를 낚을 옹고 감상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추천하는 건 바로 해 질 무렵 성벽 길을 걸어보는 일이다. 아름다운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교회와 수도원, 궁전 그리고 분수가 곁을 때마다 새로운 각도로 파노라마가 돼 시선을 사로잡는다. 성벽 길 산책은 아드리아해의 진주인 두브로브니크의 진정한 속살을 엿보는 최고의 시간이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다.

여행 스케치 글·사진_권기범 제품UX통합개발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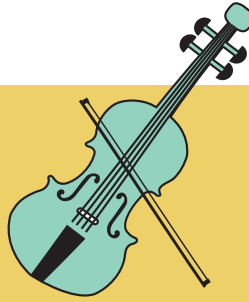


크로아티아는 2013년 TV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로 방송을 타면서 화제가 돼 이후 많은 한국인이 찾는 인기 관광지 중 하나가 됐다.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예전부터 평생 한번은 꼭 가고 싶은 곳으로 꼽혔는데, 빌 게이츠 같은 부호나 톰 크루즈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찾는 휴가지이기도 하다. 만약 지금 크로아티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먼저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여행 책보다 <꽃보다 누나> 방송을 한번 보고 여행을 떠날 것을 추천한다. 둘째, 여행 경로는 자그레브에서 시작해서 두브로브니크로 마무리하는 코스를 추천한다. 왜냐면 크로아티아의 끝판왕인 두브로브니크를 먼저 보고 나면, 자그레브에 도착했을 때 감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버스가 아닌 렌터카로, 고속도로가 아닌 바다를 끼고 있는 국도로 이동할 것을 추천한다.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해를 따라 형성됐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서 드라이브하는 재미 또한 놓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넷째, 꼭 시원한 ‘오쥬스코’ 크로아티아 맥주를 먹어보길. 몸음이 짜릿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크로아티아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은 수도 자그레브와 플리트비체, 스플리트, 그리고 아드리아의 진주라 불리는 두브로브니크를 주로 찾는다. 나 또한 다른 여행자들처럼 이 4개 도시를 방문했다. 여행 첫날,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로 향했다. 자그레브는 관광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 머물며 오랜 비행으로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제격이다. 성 마르크 성당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거나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면 돌라체 시장에서 싱싱한 과일을 먹는 것도 좋다. 이튿날에는 요정의 숲이라고 불리는 플리트비체로 아침 일찍 발걸음을 옮겼다. 플리트비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이므로, 아침 일찍 가야 한적한 상태에서 주변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사진 찍을 수 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영화 <아바타>의 모티프가 된 배경인 만큼 문명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원시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3일째 되는 날 항구 도시인 스플리트로 이동을 했는데, 이곳은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 후 노년을 보낼 궁전을 지으면서 발전한 도시다. 스플리트에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을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바 거리에서 삶의 여유도 느껴보길 추천한다. 리바 거리를 따라 심어놓은 야자수 아래 벤치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면 남국의 정취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스플리트에서 2일 밤을 머물고 5일째 되는 날 크로아티아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두브로브니크로 향했다. 두브로브니크는 주황색 지붕과 하얀 성벽 그리고 풍덩 뛰어들고 싶을 만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다.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화려할 것 같지만, 실제로 성벽 안 마을에 들어서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사이로 난 좁은 골목에서 소박한 일상을 구경하는 것이 반전 재미라고 할까? 두브로브니크의 주요 관광 코스는 구시가지 성벽 투어, 스르지산 케이블카 탑승, 렉터궁전(미술관) 관람 등으로,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길거리에서 한국 사람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유럽 관광지로 유명한 프랑스, 이탈리아와는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크로아티아. 그 아름다운 곳으로 꼭 한번 여행을 떠나보길 추천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연주하고 있나요?

수백 번 연주된 곡일지라도 나만의 곡으로 '색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연주자들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똑같은 악기와 악보에도 분명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느낌을 가져다주니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요. 같은 목표나 꿈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우리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저마다 다른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생을 연주에 비유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어떻게 연주하고 있나요?

12

01

여러분이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었던 악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30% 모닥불 피워 놓고 덩가덩가 **기타** 연주가 빠질 수 있나요

23% 쿵쿵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듯한 **드럼**

22%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프리포즈의 정석은 **피아노**조

16% 차인표처럼 분위기가 있게 연주할 수 있는 **색소폰**

6% “만나면 좋은 친구” 정겨운 가락을 연주하는 **가야금**에 도전!

<기타 의견>

- »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할 수 있는 합창단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가 아닐까요? 그중의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 » 어깨와 얼굴로 악기를 감싸 안으며 선율에 맞춰 악기와 하나 되는 바이올린이요.
- » 재즈에서 전체 분위기를 잡고 무게감을 주는 콘트라베이스.
- » 한번쯤 디제잉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 » 풍~풍~풍~아침 이슬 같은, 툭 하고 치면 소리가 또르르 떨어질 것 같은 마림바는 어떨까요?
- »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클라리넷 연주를 보고 훌쩍 빠져든 적이 있습니다. 꼭!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습니다.
- » 풍물패에서 팽과리로 앞잡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 예전에는 기타를 쳤지만 현재는 트럼펫을 연주하는데 더 잘했으면 하네요.
- » 벨리리 벨리리 자연의 소리를 내는 풀피리.
- » 애절한 아쟁, 해금, 대금과 같은 전통 악기.

02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악기 연주에 얽힌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 초등학교 4학년 때 야밤에 옥상에서 하모니카를 열심히 불다가 옆집 아저씨한테 그만 물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달밤에 체조한다고 말이죠.

- 프레스금형기술1부 안경춘 차장

» 트럼펫 한번 배우겠다고 악기도 사고, 선생님도 모시고 친구들과 같이 배우기를 2년.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두 옥타브 반을 소리 내지 못해서 그만두고 말았던 일이 있네요.

- 상용생산관리부 이정로 과장

» 초등학교 5학년 가을 운동회였어요. 몇 날 며칠을 늦게까지 남아 연습하고 배운 팽과리 실력을 보여 주던 날, 제가 연주하는 옆에 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시면서 “우리 딸 잘한다”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늘 그렇게 힘을 주시면서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듯하네요.

- 대전지역본부 신경숙 사원

» 초등학교 때 시골로 전학을 갔는데, 도시에서 왔다고 애들이 말도 걸어주지 않아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음악 시간에 리코더로 <마루치 아라치>를 멋지게 연

주했더니 힘찬 박수를 받았고, 그때부터 모두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 울산달동지점 오덕수 영업과장

» 늦은 나이에 색소폰 연주를 하려니 너무 어렵더군요. 입술이 다 부르셨는데, 주위에서 입술을 보더니 뽀뽀 좀 그만하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곤 했습니다.

- 주형제어성능개발팀 최락관 기술사원

»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아산공장 효 잔치에 오셔서 제가 치는 팽과리와 사물놀이 연주를 보시고 진짜 잘한다고 좋아하셨지요. 고등학교 때 선물로 주신 기타만 안 부쳤어도 음악인으로 한가락 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아산엔진1부 정문환 사원

» 기타를 배우고 처음으로 어머니께 이선회의 <J에게>를 연주해드렸습니다. 곡 하나 연주하는 데 무려 10분이 걸렸으나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인생에서 이런 공연은 처음이라며 눈물 흘리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 덕분에 대학교 때 통기타 노래 동아리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연주했죠.

- 도장생기2팀 김동희 과장

설문 조사 기간 : 9월 6일~ 9월 10일 / 전체 설문 참여자 수 : 총 1천666명

03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가슴 뜨거운 감동을 연주해준 적이 있나요?

» 군 생활을 하던 더운 여름날, 장거리 행군 때 옆의 전우가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그 친구의 총과 배낭을 대신 어깨에 메고 행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겠지요?

- 파워트레인설계개선팀 이상무 책임연구원

» 중국 근무지에서 사무실 청소하시는 중국 할머니께서 많은 쓰레기 봉지를 힘겹게 가져가시기에 도와드렸더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이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가 됐답니다.

- 현대(중국)공사부품보증부 정웅일 과장

» 고객님 차를 인도하고 돌아오던 중 길을 잃은 할머니의 신분증을 보고 집 앞까지 모셔다드린 일이 기억납니다. 아마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였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화도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거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 익산하나로지점 오건희 영업과장

» 한동안 꽃꽂이를 배웠는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 결혼식 때 부케를 만들어서 선물했어요. 결혼식 당일 새벽시장에 가서 어울리는 꽃을 골라 아침부터 만들어서 가져다

줬는데, 다행히 모두 꽃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줘서 정말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 기술경영팀 이지연 대리

» 해외 출장으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대신 3일 내내 빈소를 지켜주었던 친구들에게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가슴 뜨거운 감동을 선물해줬던 기억이지요.

- 파워트레인NVH개발1팀 고성민 연구원

